
2021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사회계>

2020.12.6.(일) 오전 실시



경희대학교 입학처

1.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로 간의 자발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론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담론 윤리의 대표적 연구자인 하버마스(Habermas)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담론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 도덕 규범에 합의할 수 있고, 그 도덕 규범에 따라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으며 사회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담론 윤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는 이들의 자유로운 담론 교환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 규범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를 지향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에 이를 수 있다.

[나]

통일은 기적처럼, 또는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질서 있는 통일 과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동독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독 주민들과 같은 사회적 권리(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실업 수당, 공공 부조 등)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의 붕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주로 서독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동독과 서독의 통합 방식은 대부분 일방적이었다. 서독이 거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일 과정을 조율하고 이끌었다. 따라서 동독인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서독인과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인에게 전쟁의 저주와 고통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동독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동독 지역은 서독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서 비롯되는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을 코앞에 둔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연금 개혁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의 상향 조정은 현재 청년 실업 등을 겪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라며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노년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년층도 언젠가는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제도로 인한 혜택을 전 세대가 고루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지만, 이 방안이 국가 통합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 소득 대체율: 본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라]

단층선 분쟁은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국가나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이다. 단층선 분쟁은 폭력을 동반한 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 전쟁은 나라들 사이에서, 비정부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나라와 비정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라 안의 단층선 분쟁은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집단들 간에 벌어지는 충돌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와 화교처럼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폭력으로 분출되거나, 신생국이 들어서면서 국경선이 확정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시도가 강행되어 전면전으로 치닫기도 한다. 단층선 분쟁은 때로는 주민들을 장악하려는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개는 영토 분쟁의 양상을 띤다. 당사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 진영의 목표는 그 지역의 통합을 위해 영토를 점령한 뒤 다른 진영 사람들을 내쫓거나 죽이거나 둘 다를 감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민족 청소’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다른 진영 사람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갈등을 빚는 영토는 한 진영에게 또는 양 진영 모두에게 자신들의 역사나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고도의 상징성이 깃든 지역이다. 그 성스러운 땅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그들은 믿는다. 요르단 강 서안, 캐슈미르, 나고르노-카라바흐 트리나 계곡, 코소보가 그런 곳들이다.

[마]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으로 불리는 북촌도 관광 명소로 주목받으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갈 수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 안내소 건립에 대해 “북촌 고유의 모습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자체와 다른 주민들은 적극적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내소는 계획대로 건립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주무 기관인 구청과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일방적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구청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정 방식을 탈피했다. 주민 정서와 의견을 반영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다. 전문가 설명회, 주민 간담회, 지역 단체 회의 등 주민들과의 대화가 여러 차례 열렸다. 그 결과 설계안이 변경됐고, 완공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통합한 최종안이 나왔고, 일부 반대 의견은 잦아들었다. 한 주민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모두 최종 합의에 따라주었다.”라며 “상호 합의한 뒤에는 추가 이견 없이 안내소 건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바]

유럽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유럽 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유럽의 다양한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서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등 대규모 민족 간 전쟁으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20세기 중반은 평화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사상적 조류가 강한 시기였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유럽 전역에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고 유럽 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보조 아래 추진되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유럽에서는 국민국가 간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졌고, 20세기에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 대전 등 전쟁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을 딛고 장기적인 평화 가능성이 가능하였던 것은 유럽 통합의 제도적 형식을 취한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제도화된 협력이 양국에게 평화 공존과 경제 번영이라는 혜택을 가져왔다면, 주변의 크고 작은 국가에게도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자국의 정책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야 하였던 베네룩스 3국이 유럽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이 27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오랜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작은 분야부터 통합을 시도하여 마침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언제나 적대가 종횡으로 교차한다. 이곳에는 각 진영이 자신의 관점을 활발하게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헤게모니*적 기획들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을 사회발전의 장애로 보고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의 갈등이 필요하다. 갈등을 혐오하면서 조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불만을 야기할 뿐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서로 논쟁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동감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경합’이 필요하다. 적대적 진영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상대 진영의 싸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적대 진영을 싸움의 상대로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활발한 의견 대립을 펼치는 ‘경합적 투쟁’이 요구된다. 통합을 통해 완벽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반대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헤게모니: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H구청은 관광객 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한다. H구청은 1번부터 6번까지의 안내소 위치를 제안하였고, 구민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H구에서는 안내소 위치를 둘러싼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H구의 갈등지수는 안내소 위치에 대한 구민들 간의 갈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실수이다. 갈등지수가 0이면 구민들 간 대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커질수록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H구의 갈등지수를 x 라 하고,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을 y 라 하자. 간담회 참여율은 갈등지수의 함수이며, 갈등지수가 1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은 27%이다.

간담회 참여율 함수의 도함수(y')는 일차함수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ㄱ) 갈등지수가 3.7일 경우, 도함수의 값은 5번 제안이 탈락되었을 때 1번, 3번, 6번 중 하나가 선택될 확률이다. (단, 각 제안이 선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ㄴ) 도함수의 x 절편 값은 4이다.

(1)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 함수를 구하고, 이를 X-Y평면을 이용하여 닫힌구간 $[0, 10]$ 에 대해 x 절편, y 절편 값을 표시하여 그리시오.

(2) 갈등지수가 5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을 구하고, 그 결과 값과 (1)에서 구한 x 절편, y 절편 값을 이용하여 제시문 [사]의 관점을 평가하시오.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

제시문 [가]~[바]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가], [마], [바]는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반면, [나], [다], [라]는 통합이 강제나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가]는 사회 통합을 위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마]는 북촌 안내소 건립이 주무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건립된 사례를 보여준다. [바]는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반면, [나]는 준비 없이 시작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 주도의 일방적 국가 통합 방식을 보여준다. [다]는 국가가 국민 연금과 관련된 세대 갈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라]는 단층선 분쟁에서 흔히 목격되는 강제적 민족 통합의 양상을 묘사한다. (487자)

[문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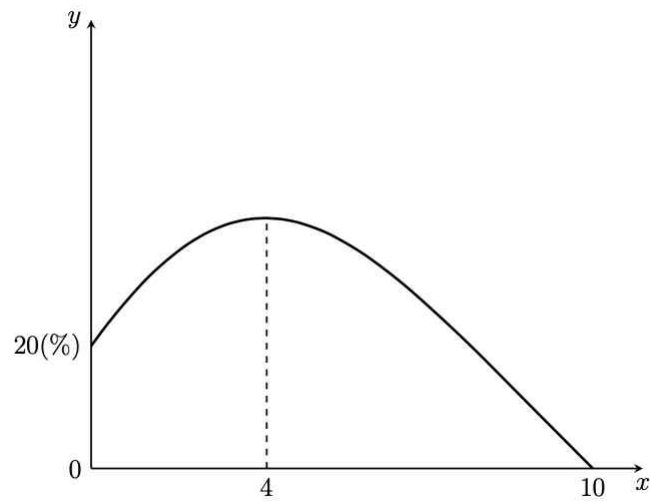
제시문 [사]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갈등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보지 않고,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반대 진영의 의견 표출 권리를 상호 인정하고, 활발하게 의견 표출과 대립에 나서는 ‘경합적 투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동적 사회를 위해서는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지역 내 소수 민족을 폭력을 통해 강제 통합한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이런 통합을 통해 민족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 의견이 계속 표출되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갈등 상대의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조차 처음부터 봉쇄했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 소통을 통해 해결한 지역사회 통합의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합의에 의한 통합에 의해서도 갈등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갈등 상대에 대한 인정과 일시적 의견 교환이 허용되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 갈등 표출과 대립의 기회가 봉합돼 버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656자)

[문제 III]

(1) 6개의 제안 중 5번이 탈락되는 사건을 A, 1번, 3번, 또는 6번이 선택될 사건을 B라 하자. 이때 도함수 조건 (ㄱ)을 만족하는 확률 값은 $P(B|A) = \frac{P(A \cap B)}{P(A)} = \frac{3/6}{5/6} = 0.6$ 이다. 따라서 도함수는 갈등 지수가 3.7일 경우 0.6의 값을 갖고, x 절편 값이 4이므로, $y' = -2x + 8$ 가 된다. 따라서 닫힌구간 $[0, 10]$ 에 대한 간담회 참여율 함수 $y = \int (-2x + 8)dx = -x^2 + 8x + C$ 로 나타낼 수 있다. 갈등지수가 1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이 27%이므로 $y = -x^2 + 8x + 20$ 이 되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갈등지수가 5일 경우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 값은 35%이다. 이때의 간담회 참여율은 갈등지수가 0일 경우의 20%(y 절편)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정도의 집단 내 갈등 상승이 간담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갈등을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과 부합한다. 반면, 갈등지수가 매우 높은 구간에서는 간담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갈등지수가 10(x 절편)에 가까울 때에는 간담회 참여율이 0%에 가깝다. 이 경우에는 제시문 [사]의 관점과 달리 갈등이 사회 참여의 장애로 작용하므로, 대립을 해결하여 갈등지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3.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논제 당 100점(3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논제 I> (401~500자)

- 2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 6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601~700자)

-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I>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바]는 공통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이루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 [마], [바]는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나], [다], [라]는 통합이 강제 또는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 [마], [바](협력적, 합의에 의한 통합)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 [다], [라](일방적, 강제에 의한 통합)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표현력 등)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갈등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
 - 갈등 상대의 의견 표출 권리를 인정하고, 활발하게 의견 대립에 나서는 ‘경합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
- ②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라]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소수 민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은 강제 통합에 의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소수 민족의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가 처음부터 봉쇄됐다는 점
- ③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마]의 장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지역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은 소통과 합의에 의한 통합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반대 의견에 대한 인정과 일시적 의견 교환이 허락됐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 갈등 표출과 대립의 기회가 봉합됐다는 점
-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표현력, 창의력) 가점

3) <논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ㄱ)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함수 값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5점 가점
- ②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도함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도출했으면 5점 가점
- ③ 도출한 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도출했으면 10점 가점
- ④ 도출한 함수의 그래프를 두 절편 값을 표시하여 정확하게 그렸으면 5점 가점
- ⑤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간담회 참여율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함수의 y 절편 값을 이용하여 제시문 [사]의 관점이 타당함을 서술하였으면 10점 가점
- ⑥ 함수의 x 절편 값을 이용하여 일부 상황에서 제시문 [사]의 관점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면 5점 가점

[제시문 출처]

- [가] 변순용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pp. 188-189. (재구성과 윤문); 차우규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p. 190. (재구성)
- [나] 정창우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p. 202. (재구성과 윤문)
- [다] 변순용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p. 187. (재구성과 윤문); 신형민 외 (2018), 『고등학교 사회 문화』, 비상교육, pp. 152-153. (재구성)
- [라]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 (1996), 『문명의 충돌』, 김영사, pp. 342-343. (재구성과 윤문); 정창우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p. 205.
- [마] 한국행정연구원 (2016), 『공정사회와 갈등관리(V):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 6. (재구성과 윤문); 서범석 외 (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pp. 85-88. (재구성)
- [바] 조흥식 (2006),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푸른길, pp. 58-59; 이병인 외 (2018),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pp. 204-205. (재구성)
- [사] 상탈 무페 저, 서정연 역 (2020), 『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난장, pp. 38-39. p. 130. (재구성과 윤문)

4.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오전) 논술고사의 주제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사회 갈등과 통합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이다. 이 문제를 통해 협력적이고 합의에 의한 통합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은 어떤 방식의 통합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동적 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과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특히 사회 갈등 해결과 통합에 관한 제시문 구성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중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나타난 내용을 발췌했으며, 이 주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지문으로 사용하거나 재구성했다.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188-189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금성출판사	2018	190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02	제시문 [나]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187	제시문 [다]	O
고등학교 사회 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152-153	제시문 [다]	O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	김영사	1996	342-343	제시문 [라]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05	제시문 [라]	O
공정사회와 갈등관리(V):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 행정연구 원	한국 행정연구 구원	2016	6	제시문 [마]	O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9	85-88	제시문 [마]	O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조홍식	푸른길	2006	58-59	제시문 [바]	O
고등학교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18	204-205	제시문 [바]	O
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 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상탈 무페 저, 서정연 역	난장	2020	38-39, 130	제시문 [사]	O

* 재구성 및 윤문은 지문의 논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충실했던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취지로 이루어졌음.

5.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을 위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나]는 준비 없이 시작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 주도의 일방적 국가 통합 방식을 보여준다. [다]는 국가가 국민 연금과 관련된 세대 갈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라]는 단층선 분쟁에서 흔히 목격되는 강제적 민족 통합의 양상을 묘사한다.[마]는 북촌 안내소 건립이 주무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건립된 사례를 보여준다. [바]는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사]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보지 않고,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 I]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달성하는 두 가지 방식, 즉 협력적이고 합의에 의한 통합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방식은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 방식은 통합이 강제나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협력적이고 합의적인 통합 방식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II]는 활발한 반대 의견 표출과 지속적 경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사]가 앞선 제시문들과 달리 갈등이 해결 불가능하며 역동적 사회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가 통합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지며, 동시에 강제와 합의라는 통합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수민족의 강제 통합은 완벽한 갈등 해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수 민족의 반대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에 대한 인정과 소통이 일시적으로 허락됐지만,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논제 III]은 고등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 및 수학 II 교과과정에 나오는 함수, 조건부 확률, 도함수 및 부정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을 수식 및 그래프로 표현하고, 논제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수험생들은 문제 풀이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사회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통합으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추론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사회계>

2020.12.6.(일) 오후 실시



경희대학교 입학처

1.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는 산업 간 경계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업종 사이의 융합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마존, 이베이,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업종 경계가 거의 없다. IT 업체인지, 금융회사인지, 유통 업체인지 해당 기업들도 스스로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종 소프트웨어의 상징인 ‘혼글’을 만든 한컴그룹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드론,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15개 계열사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혼글’만 고집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었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첨단 업종을 융합하여 가능한 일이었다. 농촌에서도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1차 산업)을 바탕으로 식품, 특산물 제조 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체험, 관광(3차 산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6차 산업이라고 불린다. 이는 농업 생산물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공 상품(건강식품, 생활용품 등)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관령 양떼 목장은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명소이지만 알고 보면 6차 산업 시스템을 도입해 더 성공한 사례이다.

[나]

이민자들이 낯선 문화적 환경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사회·문화적 동화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또한 이민자들의 현실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란 다른 문화를 판단하거나 규정할 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자신들의 세계와 전혀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민자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국가·민족별로 유대를 형성하고 공동 주거지인 민족집단지주지(ethnic enclave)를 만들어 그들만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타국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평안을 찾는다. 민족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생산과 소비의 시장 역할을 동시에 하므로 이민자들은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민족적 집단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국민 참여 경선 제도는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 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 참여 경선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개방형 예비 선거(open primary)를 들 수 있다. 개방형 예비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 시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당들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의원, 당원, 일반 국민의 투표와 여론 조사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참여 경선 제도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지닌다. 학자, 언론인, 정치인 중에는 그 제도의 단점을 들어 더 이상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정당의 색채가 불분명해진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들 상호 간에는 차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정체성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당이 어떻게 국민에게 명확한 공약을 제시해 선택 받고, 어떻게 일관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정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국민 참여 경선 제도는 민주적 성격을 띠는 듯이 보이지만,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당의 존재 가치를 희석시키고 정당 정치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라]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오늘날의 인도 북부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왕조이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아크바르(Akbar)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아크바르는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소수의 이슬람교도로만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힌두교도에게 거두어 오던 인두세를 폐지하고, 관직과 군대를 힌두교도에게도 개방하였다. 또한 아크바르 자신도 힌두교도와 결혼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이슬람교와의 화합을 추진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아크바르는 여러 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학자, 성자들까지 초대하여 종교와 사상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덕분에 무굴 제국 초기는 인도 역사에서 황금기라고 불린다. 특히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으로 발달한 건축, 문학, 음악 등은 오늘날에도 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굴 제국의 대표적 건축물인 타지마할에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

[마]

코로나19는 국가 간 교역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20 무역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 감소했다. 이처럼 세계 무역이 위축된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정책 및 교역 비용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 폐쇄로 인한 국제 무역의 감소는 각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전부일까. 만약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과장되거나 조작된다면 세계는 무역 장벽 등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로 점철된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코로나19의 책임을 구멍 뚫린 국경과 이민자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극우 정당들 역시 경쟁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보다 지구촌 차원의 정보 및 의사소통의 개선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높아진 무역 장벽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복, 개인보호장비, 컴퓨터 단층 촬영시스템 등 의료용품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

[바]

‘타다’. 탄생부터 찬반이 팽팽했던 이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최근 정부·업계·시민단체가 한꺼번에 얹힐 정도로 복잡해졌다. 한편에선 타다 대표의 기소와 타다금지법이 상정되고, 다른 한편에선 혁신 기업에 대한 억압이라며 반발한다.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대여서비스’로 택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수사(修辭)가 아닌 시장으로 판단해야 한다. 타다의 시장은 택시 시장과 딱 겹친다. 우리가 혁신 기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일터와 수익원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타다는 새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새 기술로 영세한 서민의 생계를 공격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의 1,000여 대는 실험적이라 쳐도, 내년까지 1만 대로 늘린다고 한다. 이는 상생이나 시장 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같은 건 패념치 않는 발상이다. 결국 타다는 택시 업계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택시 시장의 매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버·에어비엔비 같은, 기존 업종과 겹치는 공유 경제 모델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위협으로부터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

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규제란 정책적 목표의 실행 수단으로, 시장 거래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사]

영호남 연극제는 영호남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연극의 발전과 영호남 지역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연극 협회장은 “다른 축제들과 다르게 영호남 연극제는 지역 갈등에서 벗어나 동서 화합과 지역 연극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것이니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영호남 화합 줄다리기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인 섬진교 개통 80주년을 맞아 2016년부터 매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의 교류 행사로 정례화되었다. ○○ 군수는 “이 행사를 통해 이웃사촌의 상생 발전과 동서 화합을 염원한다.”라고 말한다. 영호남을 잇는 이러한 행사들을 여러 지방 자치 단체가 주요 공공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방 자치 제도가 자기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간의 화합이라는 취지도 포함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특히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으로 불필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제는 중앙 정부도 지역 간 화합을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단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인재 등용, 균형 개발 등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따른 배타적 장벽이 낮아져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인종 갈등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이지만, 미국 연방 정부가 인종 간 분리를 없애고 인종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주거·도시개발 등의 정책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

정치철학자 구딘(R. Goodin)은 민주주의에 대한 당위적 이상론을 제시한다. 그의 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익에 대해 내 마음속에서 성찰하는 내재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구딘은 성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고 마음속 상상의 세계에서 그들과 나 자신 사이의 민주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의 과정은 자유롭고 신축적이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마음속에서 연결되어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또 필요하다면,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마음속에서 연결되어 이해와 관용의 분위기를 가꿀 수 있게 해 준다. 시간, 공간, 계층, 조직, 역할 등에 의한 각종 구분과 경계를 나 혼자 인식의 세계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뛰어넘을 수도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내가 남들의 입장을 고려해 성찰하겠다는 동기가 있는 한, 모든 유형의 사람, 이익, 의견을 전면적으로 포용할 수 있고 각종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를 성찰의 요체로 삼는 구딘의 이상론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집단 내에서든 집단 간에서든 여러 이익 충돌이 조화롭게 조정되고 소외 집단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이익까지도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사]를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에 나오는 대처 방안을 평가하시오.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제시문 [바], [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A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으나, B국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다. 각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A국에서 0.1이고, B국에서 $p(0 \leq p \leq 1)$ 이다. 개인의 코로나19 감염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양국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은 1년간 수입 없이 치료 비용 10냥을 지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경우, A국의 개인은 연간 30냥의 수입을 얻으며, B국의 개인은 연간 40냥의 수입을 얻는다. A국과 B국의 인구는 100명으로 동일하고 다른 조건들도 같다. A국과 B국의 차이는 오직 국경 폐쇄 여부에 의해 발생한다.

- (1) A국에서 2명, B국에서 1명을 무작위로 뽑을 때, 선발된 3명 중 감염자 수가 2명일 확률은 0.044이다. 이를 이용하여 B국에서 각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 p 를 구하시오.
- (2) A국에서는 36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수입을 조사했다. 조사에 포함된 36명의 수입의 평균이 25냥 이상 28냥 이하일 확률을 아래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참고: 코로나19 감염자는 치료 비용만 지출하므로 수입은 -10 냥이다.).
- (3) A국과 B국 각각에 대해 국민 전체의 순수입(비감염자들의 총수입 $-$ 감염자들의 치료비 총지출)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관점을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표준정규분포표: $P(0 \leq Z \leq z)$

z	0.00
0.0	0.000
0.5	0.192
1.0	0.341
1.5	0.433
2.0	0.477
2.5	0.494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

제시문 [나], [다], [바]는 사회·국가와 관련하여 경계(구분)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 [라], [마], [사]는 경계를 넘어 융합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나]는 이민자들이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응하여 민족집단거주지와 같은 독자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다]는 국민 참여 경선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논한다. [바]는 ‘타다’가 택시업계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반면 [가]는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무굴제국이 이슬람과 힌두의 종교적 화합과 융합을 통해 발전한 사례를 제시한다. [마]는 각국이 국경 폐쇄보다는 국가 간의 개방적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함을 주장한다. [사]는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지자체 및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495자)

[문제 II]

제시문 [아]는 구단의 당위적 이상론을 소개한다. 구단에 따르면, 시민은 남들의 생각과 이익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찰의 요체는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로서, 기존의 사회적 경계 내에서 유대감과 일체감을 키우거나 혹은 각종 경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구단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바]와 [사]가 경계를 중시하거나 혹은 융합을 강조하는 논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정부의 정책·제도 차원에서만 대처 방안을 찾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에서는 택시 업계의 기존 이익을 외부의 ‘타다’ 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양측 간의 성찰적 자세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에서는 영호남 간의 지역 장벽을 넘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문하나 주민 스스로의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를 통한 근본적 방안을 간과한다.

그러나 [바]와 [사]의 관점에서는 구단의 주장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 이상론으로 비쳐진다. 택시 업계와 타다 업계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또한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 오랜 기간 고착되어 온 현실에서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를 요체로 하는 성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 (659자)

[문제 III]

(1) 선발된 3명 중 2명이 감염자인 경우는 ① A국에서 감염자 2명, B국에서 감염자 0명이거나 ② A국에서 감염자 1명, B국에서 감염자 1명인 경우이다.

① A국에서 2명의 감염자, B국에서 0명의 감염자가 선발될 확률

$${}_2C_2(0.1)^2(0.9)^0 \times {}_1C_0p^0(1-p)^1 = 0.01 \times (1-p) = 0.01 - 0.01p$$

② A국에서 1명의 감염자, B국에서 1명의 감염자가 선발될 확률

$${}_2C_1(0.1)^1(0.9)^1 \times {}_1C_1p^1(1-p)^0 = 0.18 \times p = 0.18p$$

선발된 3명 중 2명이 감염자일 확률은 $0.01 - 0.01p + 0.18p = 0.044$

따라서 $0.17p = 0.034$ 이고 $p = 0.2$

(2) A국 사람들의 수입의 평균은 $0.9 \times 30 + 0.1 \times (-10) = 26$

A국 사람들의 수입의 분산은 $0.9 \times 30^2 + 0.1 \times 10^2 - 26^2 = 144$

추출된 36명의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26, \frac{144}{36})$ 을 따른다.

따라서 추출된 36명의 사람들의 수입의 평균 \bar{X} 가 25 이상 28 이하일 확률은

$$P(25 \leq \bar{X} \leq 28) = P\left(\frac{25-26}{2} \leq Z \leq \frac{28-26}{2}\right) = P(-0.5 \leq Z \leq 1) = 0.192 + 0.341 = 0.533$$

(3) A국에서 순수입의 기댓값 = 90명 × 30냥 - 10명 × 10냥 = 2,600냥

B국에서 순수입의 기댓값 = 80명 × 40냥 - 20명 × 10냥 = 3,000냥

위의 결과에 따르면 국경을 폐쇄한 A국보다 국경을 폐쇄하지 않은 B국에서 국민들의 순수입의 기댓값이 크다. 따라서 제시문 [마]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3.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논제 당 100점(3논제 포함 300점)
- ② 기본 점수 :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논제 I> (401~500자)

2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6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I>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나], [다], [바]는 명확한 경계(구분)를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문 [가], [라], [마], [사]는 경계를 넘어 융합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나], [다],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가], [라], [마],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표현력 등)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아]의 논지(감정이입을 강조하는 성찰적 자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아]의 이상론으로 제시문 [바], [사]의 대처 방안(정부의 제도·정책을 강조하는)을 적절히 비판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바], [사]의 현실론으로 제시문 [아]의 이상론을 적절히 반박하면 10점 가점
-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표현력, 창의력) 가점

3) <논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B국의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 p 를 구하는 풀이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5점 가점. 이를 통해 정확한 답을 제시하면 5점 가점
- ② A국에서 임의로 추출된 36명의 수입의 평균이 25 이상 28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풀이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10점 가점. 이를 통해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5점 가점
- ③ A국과 B국 각각에 대해 국민들의 순수입의 기댓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각각 5점씩 하여 10점 가점. 두 나라의 순수입의 기댓값을 비교하여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 것이 제시문 [마]의 관점과 부합함을 서술하면 5점 가점

4.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사회적 현상·관계와 관련한 경계(구분)와 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대비되는 개념인 폐쇄적 경계(구분)와 개방적 융합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또한 경계를 중시하는지 혹은 융합을 강조하는지의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실천 방안을 정부의 제도·정책 차원에서 찾는 현실론과 각 개인의 마음속 성찰에서 찾는 이상론을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사례와 관련하여 폐쇄적 경계(국경)를 강화할지 혹은 개방적 융합이나 연계(국가 간 협력)를 추구할지 수리적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경계(구분), 융합, 폐쇄, 개방, 현실론, 이상론 등의 개념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출제하였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고등학교 한국지리』	박철웅 외	미래엔	2020	146	O
	「포스트 코로나 기회, 플랫폼과 융합의 디지털 경제」, 『한국경제신문』	박대석	한국경제신문사	2020. 9. 28		O
	「농촌서 진행중인 ‘1+2+3=6’차 산업혁명에 올라타라」, 『중앙일보』	김성주	중앙일보사	2018. 5. 24		O
[나]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109~110	O
[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9	96~97	O
[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9	212	O
[마]	「대중주의 우파의 ‘코로나’ 활용법」, 『한국일보』	파리드 자카리아	한국일보사	2020. 3. 9		O
	「전 세계 수출 8.8% 감소... 코로나19 봉쇄로 무역 위축」, KBS 방송기사	옥유정	KBS	2020. 9. 27		O
[바]	「타다, 공유경제의 불편한 이면」, 『중앙선데이』	양선희	중앙일보사	2019. 12. 21		O
[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88	O
[아]	<i>Reflective Democracy</i>	Robert E. Goodin	Oxford Univ. Press	2003		O
	「지구화 시대의 탈경계 정치과정을 위한 이론토대」, 『한국정치연구』	임성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11	223~227	O

5.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민자들이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응하여 민족집단거주지와 같은 독자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다]는 국민 참여 경선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논한다. [라]는 무굴제국이 이슬람과 힌두의 종교적 화합과 융합을 통해 발전한 사례를 제시한다. [마]는 각국이 국경 폐쇄보다는 국가 간의 개방적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함을 주장한다. [바]는 ‘타다’가 택시업계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는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는 시민은 남들의 생각과 이익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구단의 이상론을 소개한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로 구성되었다. 일반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작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수리적 문제풀이 능력과 수리적 추론 전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I]은 사회적 현상·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 즉, 명확한 경계(구분)를 중시하는 관점과 경계를 넘어 융합을 강조하는 관점을 구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취지를 지닌다. 전자의 관점은 각각 민족, 정당, 업계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후자의 관점은 각각 산업, 종교, 국경, 지역의 경계를 넘어 융합·연계되는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응시생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II]는 사회적 경계를 중시하는지 혹은 융합을 강조하는지의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실천 방안을 정부의 제도·정책 차원에서 찾는 현실론과 각 개인의 마음속 성찰에서 찾는 이상론을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아]가 다른 제시문들과 달리 경계 혹은 융합 중 어느 한쪽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과 마음속 대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과 일체감을 키울 수도 있고 이해와 관용의 가치를 실천할 수도 있음을 이상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바]와 [사]가 경계냐 융합이냐의 관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대처 방안을 정부의 정책·제도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찾는다는 데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응시생은 이상론과 현실론 간의 차이를 인지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문제 III]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이항분포, 사건의 독립, 확률의 곱셈정리, 표본 평균의 분포, 정규분포, 기댓값을 이용하여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실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